

경험이 펄펄 살아 뛰는 진정한 책

멀리 해야 한다지만 결코 그럴 순 없는 책들을 그리워하며

최하림

시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낀다는 경구는 무섭다. 그 경구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경구가 담고 있는 선인들의 정신 때문에 틈틈이 나는 책을 읽은 편이라고 해야 한다. 70년대 후반에는 특히 그랬다. 이 시기에 나는 시집과 소설, 역사책 등을 다치는 대로 읽고 이념서적들도 남들이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시기에 읽은 독서량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70년대에는 그러저럭 읽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책을 손에 들지 못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깊이가 점점 줄어들어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단세포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내가 손에 든 것은 2집1정의 정치 게임을 좇아 「시사저널」을 보는 것과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보는 것 정도다. 글썄, 「시사저널」이나 추리소설을 읽는 것도 독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매주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 그것들은 즐겁다. 정치의 변수들도 즐겁고 추리소설의 작자와 독자가 속이고 속는 게임도 즐겁다. 비트겐슈타인도 친지들에게 추리소설을 읽으라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권했다지만, 그때에도 추리소설이 즐겁고 재미 있어서이지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낀다는 말대로라면, 아마 내 입에는 지금쯤 가시가 잔뜩 끼여 잠자는 공주의 정원쯤은 됐을 것이다. 어떤 진리와 사상의 무장을 하고 오는 왕자라고 해도 내 입안의 가시울타리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같은 가시울타리가 내 입에 끼이게 된 것은 내 게으름 탓만은 아니었다. 하얀 제복을 입은 경희의료원의 의사들 때문이었다. 그분들은 소금과 설탕, 흰쌀밥,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먹지 말고, 술을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되며, 책도 가끔적이면 멀리하라고 하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뇌세포를 긴장시키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 의사의 지시대로 나는 소금과 설탕, 닭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않으며, 책도 읽지 않았다. 그런 지가 일 년하고도 반이 넘었다.

내가 책을 멀리해야 했던 것은 재작년에

일어난 6월7일사건 때문이었다. 나는 이 일을 '사건'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일처럼 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가능성들을 송두리채 앗아가고 짓밟아버린 일은 없었다. 6월7일 2시경. 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봄이 난만한 철이어서 얼굴이라도 물들이려고 반주를 곁들였던 것인데,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째, 잔을 훌쩍 입안으로 부어넣는데 오른쪽 머리가 쟁하니 울려왔다. 혀가 둔해지고 왼손이 이상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당겨보았다. 오른손이 끄는 만큼 왼손이 당겨왔다. 나는 마을 병원에서 혈압이 위험수위라고 경고받은 바 있었으므로 그 추상적인 경고의 실체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려니 여겨졌으나 그 실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으로 조용히 옮겨지기만을 바라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2~3시간은 지나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는 1,20분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게는 그 1,20분이 하루 이틀은 넘는 것 같았다.

어쨌거나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한

진정한 책들은 진보에 대해서는 보수역할을 하며, 보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두들겨부수고 열어젖히는 역할을 한다. 진보적인 책들은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 사물과 관념을 무질서하게 배열해놓고 있는 듯한 그러한 책들은, 논리의 혼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의 생생함 때문에 그렇다.

뒤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고,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아 있는 것은 청신경뿐이었다. 무슨 그렇게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던가. 쿠퍼라미 소리, 라디오 소리, 껌씹는 소리, 하이힐 소리, 신음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듣다가 혼수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듣다가 빠져들어갔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사건도, 시간도, 이해체계 같은 것도 나는 그저 의사와 간호원이 지시하고 돌보아주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한달 뒤 병세가 호전되어 나는 일어섰고, 걸었고, 퇴원하여 날마다 우이동 뒷산으로 등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진달래능선을 타고 올라갔고, 고향산천 길로도 올라갔고, 도선사 쪽으로도 올라갔다. 왼발을 끄는 상태였으므로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일어서면 걸었다. 그런 산행에서 나는 자연이 인간의 정복대상이 아니라 우주속에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게 현존하는 존재임을 알았다. 나는 도선사의 옆구리에서 바위들이 천년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양치식물들이 바위를 감아 덮으며 사랑하는 것을 보았으며, 나뭇잎들이 땅에 떨어져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때는 나무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에서 산마루로 우루루 이동하는 것도 보았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모르던 세계였다. 나는 그렇게 내 몸의 아픔과 앓음을 문학화해서 떠올림으로써 치유하려 했던 것 같고, 서서히 치유되어 갔던 것 같고, 다음해 봄부터는 직장이 있는 광주로 내려가게 됐을 것이다. 광주로 내려가기 전, 딸들이 아파가 광주에서 홀로 지낼 것을 가엾어하며,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들을 20여 권 사주었다. 내용은 물론이고 표지나 지질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심파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책이란 것은 심심파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게 책은 심리적으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어야 했다. 나는 아가사의 책들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읽고, 버스에서도 읽고, 사무실에서도 읽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을 나눌 상대가 없는 잠자리에서 읽었다.

이전에 내게 책들은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불속으로 들어가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한자 한자 씹어먹듯이 읽어야 했다. 그리고도 성이 차지 않는 곳은 두번 세번 반복해야 했다. 그렇게 읽어야만이 그 책 저자의 위대한 정신이라 할까, 혼이라 할까와 접선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런 내게 2천원짜리도 못 되는 아가사의 책들이 마음에 찰리 없었다.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읽는 사람의 수용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내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했다. 내게는 아가사의 책들이 혼을 쯤먹는 별레처럼 여겨졌다. 에르클 포야로가 범인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도 나는,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지,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거역하고 있는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병들기 전에 읽었던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의 한 대문이 떠올랐다. 카잔차키스는 아테네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럽여행길에 오른다. 그는 독일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간다. 이탈리아의 오지에 갔을 때 인가를 찾지 못하고 하루종일 헤매다가 간신히 한 오두막을 찾아들어선 것은 캄캄한 밤이었다. 할머니가 나와 저녁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펴주었다. 피곤했던 참이라 깊이 잠에 떨어졌다. 다음 날 떠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이 돌아간 뒤로 어젯밤같이 달게 잔 적은 없었는 걸요. 그렇다. 사람이 혼자서 빈집에 자면 잠이 깊이 오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원한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웃음을 보내오고, 때로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오고가기를 바란다. 할머니가 사람의 내왕이 드문 오지에 홀로 살면서 사람의 말을 간절히 바라다가 웬 젊은이가 찾아와 하루밤을 자고갔을 때, 그 젊은이의 유숙을 신이 보내준 자비로움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젊은이의 등뒤로 어떻게 성호를 긋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로울 때 좋은 시나 소설은 그런 자비일 수 있으며, 위로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책은 그런 손님같은 존재이다. 남과 세상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독자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열성과 책이 있었으면 하고 무료해 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그 부류 중에서 볼 때, 나는 단연코 전자에 속한다. 아니 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추리소설이나 읽으며 1년여를 보냈던 것은, 되풀이하지만 의사의 공갈성 경고에 의해서였다. 의사는 한번 더 쓰러지면 정신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당신은 지금 퇴원하지만 병이 나아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번이고 주의를 주었다. 의사의 말이 옳았다. 날마다 직장에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직 투병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야 한다. 나는 「시사저널」과 추리소설로 만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조사자료실에서 「의사 지바고」를 빌려가지고 와 밤을 새며 이들 동안 읽었다. 옛날에 한번 읽은 것이었으나 다시 읽어도 재미있었다.

특히 지바고와 라라가 혁명의 불길을 피해 바르이키노 지방의 외딴 집에서 은거하는 장면은, 파스테르나크 특유의 시적 문체에 힘입어, 빛을 뿜었다. 사방이 눈으로 막힌 오두막에서 지바고가 장작을 꽤 난로를 덥히며 시를 쓰는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그 소설이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시적인 문체나 장면 때문이 아니고, 지식인 지바고가 전락하고 전락해서 마침내는 모스크바의 빈민가로 떨어져, 빈민들 사이에서, 빈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물통으로 물을 저나르다가 죽는다는 결구때문이었다. 물통으로 물을 저나르는 일은 누구라도 한다. 지바고라고 해서 못할 바 없다. 그러나 파스테르나크가 혁명의 와중에서 지바고를 물통 나르는 사나이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E.H 카가 "새로운 사회"라고 했던 소비에트 러시아가 시인을 그만큼의 효용가치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요한 돈」의 주인공이 적군과 반군 사이를 전전하다가 폐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강가에서 아들을 눈물겹게 바라보는 정경과도 유사성을 갖는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시각이다. 같은 혁명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의사 지바고」와 「고요한 돈」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와 어찌서 다른가. 내 생각에는, 솔로호프의 논리를 빌자면,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피를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는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자) 「의사 지바고」 「고요한 돈」은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지바고나 「돈」의 주인공은 농업적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들은 농업이 경제의 토대가 되었던 시대에 알맞은 사람들이다. 노동가치가 임금으로 환산되는 사회에서는 그들은 효용성이 없다. 혁명기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주인공이 힘을 얻고 지바고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은 까닭이 거기 있다.

책들은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여러가지로 보게 한다. 진정한 책들은 진보에 대해서는 보수 역할을 하며, 보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두들겨부수고 열어젖히는 망나니 역할을 한다. 진보적인 책들은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 사물과 관념을 무질서하게 배열해놓고 있는 듯한 그러한 책들은, 논리의 혼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의 생생함 때문이다. 경험이

익지 않고 펼칠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책은 아름답지 않을지는 몰라도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케 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진선의 책들”



진선출판사 720-5990 · 1